

농식품부, ‘수입콩 공매제도’ 고수… 中企 “득없고 역효과”

中企, 정황근 장관에 제도 폐지 건의
직배 공급보다 가격높고 中企 불리
3~4월 업계 의견 수렴후 결정할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콩 공매제도를 올해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소 두부가공업체들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입콩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공매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도입한수입콩 공매제도가 최고가 입찰 방식이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매로 인해 업체들이 수입콩을 비싼 가격에 낙찰받다보니 두부 등 완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밥상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만8000톤(t)에 달했던 수입콩 공매물량은 올해 8000t 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던 ‘제도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2019년 도입한 수입콩 공매제도는 첫 해엔 물량이 3433t이었던 것이 2020년엔 4000t, 2021년엔 8200t 등으로 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정황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해까지 제도가 유지되면 5년째다.

정부가 수입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수입콩은 공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직접 배분(직배) 또는 판매(공매) 하거나, 수입권을 배분(FTA 수입권배분)·판매(수입권공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단체나 개별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6만7168t이었던수입콩저울관세할당(TRQ) 물량은 지난해엔 19만6821t까지 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콩 수요가 증가해 TRQ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TRQ란 허용 일정 물량은 저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

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농산물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그런데 aT가 국영무역으로 들여와 단체나 수요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직배 물량은 2017년 당시 16만3668t에서 지난해엔 13만7181t으로 줄었다. 공매제도가 그 틈을 메우면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매제도를 TRQ 물량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배 물량은 거꾸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원재료 값은 상승해 결과적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수입콩을 이용해 두부 등을 제

조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7일 당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부터 수입콩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직배를 통해)실수요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콩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를 통해 공급받으면 직배로 받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로 원가 산정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부족해 납품·판매가격에 공매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매제도가 계속 유지돼 이를 통해 수입콩을 낙찰받은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도산 등 경영난에 직

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50년 가량 별 탈없이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누구도 득이 되질 않는 공매제도를 갑자기 도입해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새로운 수요자가 생기면 기존의 직배 형태로 수입콩을 공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고 밥상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공매제도를 완전히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입콩에 대한 공매 제도 유지 여부와 물량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두, 참깨 등 다른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공매를 통해 공급하고 있고 시장 논리를 들어 공매를 통한 수입콩 공급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3~4월 정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수입콩 공매제도가 당초 시행한 의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비트코인 이달 37% 상승… 반감기·난이도 ↑ “금리 인하,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되길”

1만6500달러→2만2700달러 급등
전문가들, 인플레이 둔화 등 원인 꼽아

비트코인 가격이 새해 들어 35%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상승 원인에 대해 3가지를 꼽으면서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2700달러대로 2만3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 초 1만6500달러 대비 37.5% 상승하면서 연초부터 상승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CPI결과(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가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반응했고,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반응도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치 때문이다.

지난 12월 1만7000달러를 시작으로 13일 1만8000달러, 15일 2만달러, 17일 2만1000달러, 21일 2만2000달러까지 회복했다. 지난 22일 장중 한때 2만3000달러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비트코인 50일 이동평균선은 물론,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인한 하락폭도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시장 상승밸리 원인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 ▲채굴 난이도상향 ▲2024년 반감기 도래 등을 꼽고 있다.



나스닥 등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달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1450원 근처까지 치솟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원화 가치 상승)해 최근 1200원대로 내려왔다.

연준이 12월 금리를 기준 빅스텝(한번에 0.5%p 인상)에서 베이비스텝(한번에 0.25%p 인상)으로 낮추면서 달러도 안정세를 찾은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부분이 달러와 연동해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암호화폐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도 비트코인 상승밸리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16일 BTC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0.26% 상승했다. 채굴 난이도가 10% 이상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년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블록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게 되는데 반감기가 내년 3~5월 사이에 일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공급이 쪼그라들면서 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생성된 이후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총 세 차례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매번 폭등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업인들이 기원하는 희망뉴스 설문

우리 기업인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뉴스로 ‘금리 전격인하(‘경제대응’ 부문)’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미래준비’ 부문)’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새해를 맞이해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3267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인이 염원하는 희망뉴스(가상뉴스)”를 조사했다.

먼저 ‘경제대응’ 부문에서는 ▲금리 전격인하 ▲코로나 종식 선언 ▲유가·원자재가 안정이 꼽혔다. ‘미래준비’ 부문은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저출산 정책효과 ▲2030 엑스포 유치의 순으로 응답됐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1위는 ‘금리 전격인하(51.2%)’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세계적 높은 물가 상승과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 한 해동안 총 7차례 인상됐다. 지난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연 3.50%로 0.25%p 올려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이어진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침체, 투자위축, 기업·가계부채 불안 등 실물경제의 곳곳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정책도 열어두

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는 ‘코로나19 종식선언(42.9%)’이 선정됐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로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3위는 ‘국제유가·원자재가 안정(39.1%)’이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안정은 공급망 자체가 정상화돼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추가적인 유가·원자재가 안정은 물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기업인들이 꼽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로 ‘중국 등 소비재 수출시장 회복(19.0%)’, ‘반도체+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이차전지(배터리)·방산·원자력) 등 주력산업 수출 호조(16.8%)’, ‘K-콘텐츠 문화산업 수출 확대(16.0%)’, ‘美 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무역 리스크 해소(15.0%)’ 등이 차례로 응답됐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미래준비 부문 희망뉴스로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46.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35.5%)’가 새해 기업인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미래대응 부문 희망뉴스 2위에 올랐다.

/최빛나 기자 vitna@